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 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90年(檀紀4323年) 9月4日 第147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張秀正
인쇄인 沈相基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번번호 7500891

母校 山岳部 또 쾌거

蘇 最高峰도 征服

모교 산악회회원 6명으로 구성된 90한국코뮤니즘원정대(대장 이인정)가 악우회 거리회등과 한팀이되어 지난 7월27일 소련의 최고봉인 코뮤니

정에 성공해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는 쾌거를 이룩했다. 코뮤니즘봉은 파미르 고원에서도 가장 높은 봉으로 폭한과 눈보라를



▲코뮤니즘봉 정상에 오른 김진성君



▲석방된 崔군이 총동창회를 방문해 鄭회장의 격려를 받고 있다.

輪禍 崔鎮煥군에 溫情 쇄도 구속 崔鎮煥군에 溫情 쇄도 총동창회 釋放앞장 탄원서 제출

어름방학을 이용해 자신과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지난 7월24일 교통사고를 낸뒤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구속됐던 崔鎮煥(廣州캠퍼스 일문4)군이 본회를 비롯한 각계의 온정으로 지난 8월1일 석방됐다. 崔군의 구속소식을 전해들은 총동창회 鄭在哲회장은 崔致根상임부회장, 張秀正사무국장을 崔군의 신병이 넘겨진 서울지점으로 보내 합의금 전

액 3백5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동창회 명의로 崔군의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또한 각계에서도 성금과 격려 전화가 쇄도했다. 崔군은 그날로 택시운전사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결할시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하오 崔군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약식기소 형식으로 석방했다. (상보 6면에)



▲李仁禎대장 ▲金廣鎧등반대장

증봉(해발 7천4백95m)등반에 한국 최초로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7월17일부터 등반을 시작해서 거의 한달동안 등정에 나선 이번 원정에서 모교 산악회는 대학 단일팀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소련 산악등

등반한 강풍등 악천후의 힘든 코스로 알려진 봉우리이다.

원정대는 지난 18일 해발 3천8백m 포르담백에 베이스캠프를 설치, 27일 상오8시 제4캠프를 떠난 장봉완 송봉철 박영석 대원은 상오 10시30분 김진성 최병수 대원과 제5 캠프에서 합류, 7시간의 사투끝에 하오3시 정상에 마침내 태극기를 휘날렸다.

본팀(모교 산악회, 거리회, 악우회)이 정상에서 하산중 악우회의 송봉철 씨가 4백m 설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교 산악회 회원 김



▲안규섭대원 ▲박영석대원 ▲김진성대원 ▲윤태영대원

진성군과 박영석군이 구출해내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7천m 이상의 높은 봉을 단위산악회의 5명의 대원이 동시등정, 최초의 연합등반성공이란 쾌거를 이룬 코뮤니즘원정대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해

냈던 모교산악회원 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장=이인정(72 상학) △등반대장=김광진(74 경제) △대원=안규섭(82 건축), 김진성(전산 4), 박영석(체교 4), 윤태영(산공 4)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①本會사무국에서 직접 購入
②송정점 全國書店 89점당우회 100-1000-1000000
우송도 개인부담
※자료들 보낼 때 인본본인신신 주소와 전화번호도 명쾌부시면 자료 불치가 되므로 반드시 어함용 드립시다.
연락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사무부
전화번호: 733-3993-1-3

◇購入 안내
▲代金: 卷당 3만원
▲購入 방법



이번에 새로발간한 제6집은 1908년 明進學校 졸업생부터 89년 卒業生까지 大學別學科別卒業年度別로 同門들의 現任所·직장 및 現위·전화번호 등을 수록, 명실상부한 東國人名錄의 記錄으로서 同門상호간의 加교역할은 물론 結束을 가져주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本會는 8萬 東國人的 성원에 힘입어 지난 84년 제5집에 이어 6년여만에 東國人名錄 제6집을 발간, 현재 同門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東國人名錄(6집) 배포 8萬 東國人名錄의 記錄

歴代사무국장懇談會 개최

同窓會發展 주제 열띤 토의



▲앞줄 吳承泰(左)尹天泳(右) 뒷줄 좌로부터 南基一 申益炫, 盧德一, 張秀正 사무국장.

순서로 진행되어 시종 열띤 토의를 벌였다.

동창회발전을 위한 제안에는 동국백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이는 全東國人的 愛校心을 발로로한 참여의식 고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총 동창회를 매개로한 동문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동국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서 동창회관 건립에 대한 안전토의에서는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학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학생들과의 연대강화로 학교와 동창회의 결속을 다져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도라는 측면에서 학교인에 동창회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대해서는 학교나 새난측과 다각적인 교섭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건립기금 모금운동은 전문동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동창회관은 동문들의

에교심의 결정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집행부에서는 재단이라든가 기업경영 동문들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한 활동유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타 의견에서는 재학생과 동창회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재학생은 미래에 동창회의 주인이며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 당원회원이 되는데 그들에게도 동창회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하며 이들의 참여의식 고취라는 차원에서 회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적립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면 졸업생들에게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회비적립금은 결국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사용될 것이므로 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라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에 이어 鄭在哲회장과 같이한 오찬에서 鄭회장은 『동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같은 모임은 필수적 단계에서 자주 갖는 것이 좋다』고 시작한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은 동창회관 건립에도 추진위원의 일원으로 선두에서 서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지 못한 宣普圭, 尹成澤, 柳大辰 역대사무국장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해 참석지 못하는 이유를 통보하고 『바쁘업무로 인해 불참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인사하고 『동창회 발전은 무엇보다도 동문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국인 각자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매개역할을 해주는 동창회 사무국과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동창회발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本會運營委員會 4次모임

本會현안검토및 활성화방안 토의

本會 運營委員會 제4차 모임이 金東英(60政治·민자당원 내총무)운영위원 자택에서 지난 7월21일 오후6시 鄭在哲議長을 비롯한 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南基一운영위원회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90년도 운영위원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자체 검토와 향후 本會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문제와 本會의 원만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을 마친 운영위원들은 金東英運營委員이 배운 단상을 가졌는데 이날 단찬석상에서 鄭議長은 本會를 위해 불신양으로 헌신해 온 운영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8월28일 오전10시 本會 사무국회의실에서 同窓會發展이란 주제로 역대 사무국장 간담회가 열렸다.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張秀正현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순서는 동창회발전을 위한 제안, 동창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문제, 건립기금 모금운동, 기타의제 건립 등의

이날 모임은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역대사무

鄭雲耕



"코뮤니즘정복"

東國라이온스클럽 定期月例會

鄭寬溶회장, 클럽 활성화방안 모색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寬溶·58法學)은 지난 8월29일 하오 7시30분 엠버서더호텔 주엘룸에서 F Y 90-91 첫 월례회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을 주재한 鄭寬溶

(석탄공사이사장)회장은 클럽 활동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월례회의 활성화, 신입회원들의 보강및 질적인향상,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등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클럽의 直前會長인 鄭在哲會長은 會員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능동적으로 會의 발전을 위해 분발할때 클럽이 활성화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朴泳周(63政治·본회이사 강원은행 강남지점장)同門과 金仁圭(64政治·서청주컨트리클럽전무이사)同門, 金德洙(70經營·본회이사 럭키증권영등포지점장)同門 등 3명을 신입회원으로 영입했다.

국내 경보기 수출 1위

고려 경보기 국내 시판개시

수출만 하던 고려경보기가 이제 국내시판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불어, 독일어, 서반어어, 화란어등 5가지 언어의 「말하는 경보기(Talking Alarm)」를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한 고려경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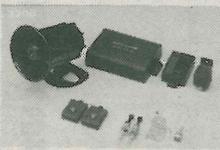
그동안 미국외대규모 자동차 경보기 회사들에 수출만 해오던 저희 고려경보기에서는 주목될 점포, 자동차 경보기를 개발, 국내시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면메이커들의 그동안 경보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자신을 가지고 국내 여러분께 공급,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려 경보기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석촌동291-13 TEL : 414-8331/2(代)
중앙사서함 4331호 TEL : 423-6119(直)
F A X : (02)414-7922
천안공장 : 천안시 백성동 14-6 TEL : 552-0891(代)
F A X : 552-8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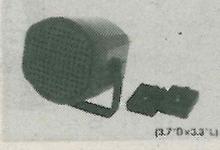
代表理事 金 淳 泰



A-3700 무선 자동차 경보기



HS-2500 무선 가정용 경보기



SR-70 무선자 동차 경보기



A180 충격감지기

同門會別 다양한活動 전개

蔚山지회, 기업체별 동문회 구성에 박차 現代重工業(주)동문회발족...회장단 선출

▲울산지회 (회장=유병평)는 지난 89년10월17일 공식 출범한 이래 현대중공업(주)동문회를 비롯한 각 기업체별 동문회를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조직 준비중인同志회는 곧 이사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동문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同志회 사무국은 양회 대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한의원을 사무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재정이 넉넉지 못한점등을 감안해 양회대사무국장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조직이 정비될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주)동문회(회장=오세원)는 지난 7월 13일 양상정(울산서부중 소제)에서 30명의 회원중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회칙개정및 회장선출을 마쳐 명실공히 동문회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유병평 울산지회회장과 양회대 대사무국장이 참석해 새로 발족한 동문회를 격려하고 울산지회에



▲울산지회 협판시 직후 기념촬영장면 좌로부터 양회대 대사무국장, 이복세, 노재수씨, 유병평회장 최병호씨, 이덕호씨, 김부환씨.

숙한 단위별 동문회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 회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새로 발족한 현대중공업(주)동문회는 기업별 동문회중 가장 모범적인 동문회가 될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오세원 과장▲총무=서계원 과장▲부총무=지용중 대리.

—임광표(73법학, 국민은행 대리)▲간사=박영국(73경영)

濟州지회 출석률100%

제주지회(회장=강대원, 총무=과경희)가 중문보임에서 출석률 100프로를 기록해 타 동문회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이처럼 출석률이 좋은데 대해同志회 관계자는「여자들의 입김이 세서 남자들이 깜짝못하기때문이다」라며「다른 동문도 인도 부부동반으로 운영해 보라고」 조언을 전했다.

政治外交學科 동문회

政治外交學科 (회장=朴翎柱)同門會가 지난 6월 서교호텔에서 주최한「제3회 동문의밤」행시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제작되어 배포 중이니 뜻있는 동문들은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金榮一(63 政治) 744-2455~6

經營學科 동문회 정기이사회

90년후반기 事業計劃 확정



▲경영학과 동문회(회장=白正基·64 경영)는 지난 7월11일타워호텔에서 趙熙榮(63경영 모교 경영대학원장) 명예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겸 임원선출대회를 갖고 金鎮元(71 경영·신성약중(주)대표이사·사진)을 새회장으로 선출하는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또 지난 8월21일에는 타워호텔에서 임시 임원회의를 개

최해 △경영학과 장학금 1천만원 설정(현재 5백만원 설정)△동국경영인인간 개척△경영인 조찬강연회 기획△경영학과 동문회 주소록 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90년후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경영학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예정인데 새로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金鎮元 ▲부회장=車壽連(68경영·모교교수)김덕수(70경영·럭키증권지점장)康鎮元(72경영·대명건설 총무부장)金祥奎(73경영·중근담 북부지점장)李殿甲(74경영·동화은행본점차장)김진억(80경영·

장기신용은행)▲감사=申在禹 68경영·공인회계사)趙椿煥(74 경영·세우전자통신대표) ▲사

무국장=安敏煥(73 경영·대우전자 공조열연부차장)

在獨동문회 정기총회 野遊會겸해 2박3일

在獨동문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2박3일간 야유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독일에 거주하는 동문중에서 박영국(61생물)재독 동문회장을 비롯 47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상부상조기금 이용안내, 각지역동문 교환생명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친목도모를 위한 야유회에서는 그림파티, 고적관광, 박물관관광, 밭고개인밧 오라키 진행되었다. 한편 在獨同門會는 회원명부를 송부해왔다.

새로과약된 支部·支會 소식

本會에서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각급 지부지회와의 활발한 교류 및 상부상조의 기틀을 다지기위해 백방으로 연락, 대부분의 지부지회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본會에 새로 과약된 지부지회 임원진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아직껏 本會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활동중인 지부지회도, 이제 단위동문회를 청탁하고자 애쓰는 동문들은 빠른시간 안에 연락을주시길 것을 요망합니다.

▷부산지부

▲회장=남기서 (60法學) T. 646-0123 ▲부회장=손팔주 T. 866-2100, 최원택 T. 632-1276 ▲총무=최윤중 T. 43-0405

▷부산, 동국회

▲회장=김경희 (56經濟) T. 44-3131 ▲총무=손순환 T. 864-1881

▷충남, 대전지부

▲회장=김기중 (53經濟) ▲부회장=정경화 T. 255-8991, 신윤표 T. 254-1177 ▲사무국장=이수춘 T. 255-4263

▷전남, 광주지부

▲회장=이상진 (60법학) T. 33-9828 ▲부회장=설정환(대성여중교장) 유홍서= T. 223-0028 ▲총무=나만기 T. 672-2600

▷경기, 양평지부

▲회장=이재성 (67 영문) T. 73-8105 ▲부회장=이준영=T. 71-5003, 김세중 T. 73-0214 ▲총무=이갑용 T. 72-8006

▷경기, 광주지부

▲회장=유홍열 T. 61-2665 ▲부회장=이종민 T. 61-4823 ▲총무=최명서 T. 62-0743

▷강원, 춘천지부

▲회장=김대식 (67 정치)

T. 54-1126 ▲부회장=안진호, 구춘서, 김상기 T. 56-1997 ▲총무=신봉빈 T. 54-4563

▷충남, 공주지부

▲회원=백영주 T. 53-3555, 김은식 T. 53-2151, 박강조, 오재직(공주대학교) 총남, 오양·아산지부

▲회장=강태공 (68식공)

T. 2-4885 ▲부회장=조광호 T. 41-2250, 이기영 T. 43-6800

▷충북, 제천지부

▲회원=박순조 T. 2-7747, 이영복 T. 2-4663, 이태호 T. 44-3333, 황윤근 T. 45-2541

▷충북, 옥천지부

▲회장=정구찬 T. 32-7711 ▲회원=이상호 T. 625-3838, 유재철 T. 33-2556, 정상배 T. 626-4414, 김상식 T. 32-2009

▷경기, 포항지부

▲회장=김상도 T. 73-5858 ▲부회장=최영태, 김연호 T. 2-7286 ▲총무=정기영 T. 73-0014

▷경기, 상주지부

▲회장=윤영오 T. 2-3193 ▲부회장=안주현 T. 34-3223 ▲총무=김희수 T. 33-3511

本會와 연락이 두절된 지회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빠른시일내에 本會에 연락주시시오.

▲강릉시 ▲진천 ▲공주시 ▲목천군 ▲논산군 ▲보령군 ▲서산군 ▲부여군 ▲단양군 ▲보은군 ▲제천 ▲괴산군 ▲음성군 ▲목포시 ▲여주시 ▲고흥군 ▲김제군

지금 문의하십시오

○인테리어 디자인·시공·감리
○실내외장식·디스플레이등 자료제공
○각종디자인 설계도 제공
※광고간판·네온사인

TEL 465-1262, 469-7856
FAX 469-7592
주식회사 성 압

진수 성찬 SERVICE COCKTAIL

도시락·단체급식 TEL 273-2631~4
출장연회 서비스 FAX 273-2633

우 리 식 품(주)

●칸테일Party ●주부도시락
●한식입식부페 ●급식동영(출장식사)
●디너Party ●식사추진
●각종Party기획연회 ●청소년(유아)아워킴프

代表: 劉基棟(68경영) 專務: 林采洪(77경영)

先代로부터 전수해온

國內外 有名畫家·書藝家의 大作

※中國·자유중국·소련의 대표화가 작품 多數

四聯·一聯근스님의 휘호
- 楠田 蔘英熙회백의 무궁화천지
- 靑吳 申壽求회백의日出
- 洛峰李學相, 法雲 全慶道회백의 병풍
- 秋風 安永均회백의 靑竹
馬, 달마도, 잉어, 호랑이, 매화, 석류, 난초,
목단풍 산수화 및 東·西洋畫의 약80점

(02)719-0109 二所 藏 者 =
(032)656-6660 유 기 연

제4세대 抗生劑 개발

언론문화상 과학기술부문 수상



文順九(72 화학·한미약품중앙연구소장) 등은 최근 단항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개발하여 재단법인 鄭進基 언론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90년 鄭進基언론문화상'과학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文君문등 연구팀은 지난 82년부터 6억원의 개발비를 투

입, 수년동안의 연구끝에 호흡기계 감염증등 각종 병원균은 물론 항생제의 내성균에 대해서도 강력한 살균효과를 지닌 제4세대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주사제를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한편 文君문은 지난 7월13일 오전10시 매일경제신문사 6층강당에서 있는 시상식에서 상패와 메달 그리고 상금으로 1천만원 등을 수여받았다.

申庚林, 제2회 怡山문학상 수상



중견시인 申庚林(59·연문) 등은 이시집「길」로 제2회 怡山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산문학상은 故金瑛奎시인의 문학적업적을 기리기위해 지난해 유족들이 내놓은 기금으로 제정됐는데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발표된

작품집을 대상으로 우수작을 골라 시상한다. 시부문 심사위원인 정현종씨는 「잊혀지지 쉬운 존재들을 감싸는 연민과 동화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수상선정 이유를 밝혔다.

申君문은 35년 충주에서 태어나 56년「문학예술」에서 「갈대」 「墓碑」로 등단해 만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등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민족문학 작가회의 부회장과 민속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加서 명예 박사학위 金東英 동문



▲金東英(60政治) 동문은 지난 8월10일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립 미아대에서 열린 국제교회 병의회(ICCC) 세계총회에 참석, ICC 조직학대회가 수여하는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

취해은 黃同門은 平素에도 東國발전을 위해서라면 鎔선수법하는 모범同門으로 本會에서는 副會長과 運營委員職을 맡고있다.

「秘史의달」강연회 金靑顯 동문

▲金靑顯(49文學) 동문은 秋史 金正禧 탄생 2백4주년을 맞아 秋史기념사업회 대표 鄭漢漢씨와 7월을「秋史의달」로 정하고 첫행사로 大田市 문화

「國民…」창간 1주년 朴璠浩 동문

朴璠浩(73醫術) 동문은 지난 8월26일로 국민교육신문 창간 1주년을 맞게됐다.

국민교육신문은 바른교육, 유아교육, 초·중·고의 학교교육, 대학및 대학원교육, 가정및 사회교육, 나아가 미래교육의 방향제시에 이르기까지 12년의 지면에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한다.

李漢雨 個人展

李漢雨(85 敎授) 동문



李漢雨(85敎授) 동문은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을 걸러 1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李君문은 國展에서 6回特選, 문예진흥원 국전 추천작가등 화려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술계 중진작가.

현대식 공작 작공 閔鳳植 동문

▲閔鳳植(81行院, 털보세품(주)대표이사) 동문은 최근 충북음성에 건평 3천여평의 현대식공작을 착공했다. 閔君은 국민식생활 개선을 선두주자로 신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위 동문들의 近況이나 近況의 近況이나 近況의 近況이다.

를받고「세계질서의 변화와 기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연설했다. 金君문은 현재 민자당 원내총무를 맡고있으며 본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東部투자금융 사장취임 黃龍雲 동문



▲黃龍雲(54經濟·본회 부회장이자 금융위원회 운영위원) 동문은 최근 한국생명보험(주)대표이사에서 東部투자금융 사장으로 취임했다. 昨 곧 금융계에서 역량을 발

회관에서 16일 상오10시 강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예가로 손꼽히는 金君문은 지난 88년부터「書通」을 복간 발행해 오고있다.

體育「功勞牌」수상 金在澤 동문



▲金在澤(49文學) 동문은 지난 7월 13일 大韓體者會創立70周年記念式典에서 전국 각협회부문에서 선출된 표창유공자중에서 大韓士기協會를 대표하여 功勞表彰

포에서서 東部투자금융 사장으로서 취임했다. 昨 곧 금융계에서 역량을 발

과대 교수.

▲金英默(공학박사) = 降雨時無限斜面の 浸透學動 ▲56년생 ▲82년 모교 토목공학과 ▲85년 강원대 강사 ▲88년~현재 모교·대전공대 강사.

▲金炳中(공학박사) = 合成로 構造의 彈·塑性變動에 관한 研究 ▲53년생 ▲78년 모교건축공학과 ▲80년 경원전문대 강사 ▲81년~현재 인천전문대 조교수.

▲朴邦烈(공학박사) = 住居建築의 濕熱環境計劃에 관한 研究 ▲55년생 ▲81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83년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 ▲88년~현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朴鍾誥(공학박사) = 反復水本力을 받는 鐵骨 브레이스骨組의 耐力에 관한 研究 ▲49년생 ▲74년 모교 건축공학과 ▲78년 서울전문대 조교수 ▲84년~현재 건축사 사무소 정진소장

▲張勝敏(공학박사) = 상 이종 촉매의 합성과 촉매특성 ▲52년생 ▲76년 모교 화공학과 ▲86년 일리노이대 연구원 ▲81년~현재 대구대 부교수.

▲金榮培(공학박사) = 우리나라 米穀의 品質과 食味の 相互關係 ▲40년생 ▲64년 경북대 농화학부 ▲76년~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연구실장

▲安炳學(공학박사) = Geotrich candidum의 분리, 고장 및 영양적 화합물 생산에 관한 연구 ▲53년생 ▲79년 모교 식품공학과 ▲81년 한국 과학기술인 연구원 ▲88년~현재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식품생화학 연구실 선임연구원.

▲劉永珠(이학박사) = 한국가족의 대내적기능 연구-가족의 기능요인 및 수형도를 중심으로 ▲38년생 ▲61년 서울대 가정학과 ▲76년 서울대 가정대 조교수 ▲82년~현재 경기도 가정관리과 교수

▲姜利珠(이학박사) =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45년생 ▲69년 서울대 가정교육과 ▲84년 고대-경희대 강사 ▲87년~현재 인천대 가정관리과 조교수.

▲洪正和(경영학박사) = 企業의 社會的 責任報告에 관한 實證的 研究 ▲53년생 ▲81년 모교 회계학과 ▲84년~현재 경원대 회계학과 부교수.

▲金龍錫(경영학박사) = 會計情報에 있어서 報告遲延의 信號效果에 관한 實證的 研究-上場企業의 年次報告書를 中心으로 ▲55년생 ▲77년 모교 경제학과 ▲81년 삼지전문대 부교수 ▲89년~현재 삼지대 경영학과 조교수.

▲朴喜斗(문학박사) = 南漢江 中·上流 盆地의 地形 研究-堆積物 分析을 中心으로 ▲50년생 ▲72년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75년~89년 고교교사 ▲89년~현재 서원대 지리교육과 책임강사.

▲鄭蕪蕪(농학박사) = 黃色種煙草品種의 Gamma線에 의한 突然變異誘起 및 變異形質의 遺傳分析 ▲49년생 ▲75년 충북대 연초학과 ▲76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소 ▲78년~현재 한국인삼연구소 선임연구원.

▲姜伊連(농학박사) = 苜蓿(Arachis hypogaea L)의 濕害에 對한 品種間反應 및 品種의 分類 ▲54년생 ▲82년 모교 농학과 ▲84년~현재 경기도 농촌진흥청 시험국 농업연구소.

▲崔德一(이학박사) = 亞黃酸가스와 오존이 집과리 個體群의 內的 減少率, 產卵時期 및 羽化率에 미치는 影響 ▲43년생 ▲65년 서울대 약학과 ▲70년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연구소 ▲90년~현재 국립환경연구원 기획과장.

▲沈在郁(이학박사) = 人參根腐病原真菌의 發病抑制 및 誘發 土壤의 特性과 防除에 관한 研究 ▲53년생 ▲77년 강원대 임학과 ▲82년 임목육종연구소 연구원 ▲87년~현재 모교과장

▲李善熙(공학박사) = 負電變調에 強靱한 MOSFET 인버터型超音波 發生裝置 ▲52년생 ▲78년 모교 전자공학과 ▲82년 경기도·서울산업대 강사 ▲83년~현재 유한공업전문대 전자과 부교수.

▲池洪基(공학박사) = 洪水豫測을 위한 確定論的 流出模型 ▲48년생 ▲72년 영남대 토목공학과 ▲77년 아양공전 조교수 ▲81년~현재 영남대 공

1989학년도 博土학위 취득자 프로필

◆李仲杓(철학박사) = 阿舍의 中道體系 研究 ▲53년생 ▲80년 전남대 철학과 ▲80년~현재 전남대 강사 ▲89년~현재 모교 불교학과 강사.

◆金容祚(철학박사) = 韓鮮前期의 國行祈壤佛事 研究 ▲38년생 ▲61년 서울대 ▲80년 외국어대 강사 ▲81년~현재 경상대 부교수

◆金義淑(문학박사) = 韓國民俗祭儀의 形成에 관한 研究-陰陽五行 思想을 中心으로 ▲44년생 ▲73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80년 강원대 강사 ▲81년~현재 강원대 국문학과 부교수

◆孫秉國(문학박사) =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話本小說의 影響-특히 「三言」과 「二拍」을 中心으로 ▲53년생 ▲79년 모교 국어국문학과 ▲86년 추계예술대 및 모교 강사 ▲88년~현재 강원대 국문과 강사.

◆高宰錫(문학박사) = 韓國近代文學의 佛敎敎性的 背景 研究-韓龍雲과 梁建植을 中心으로 ▲56년생 ▲79년 모교 국어국문학과 ▲84년 경원대·강원대·건국대 강사 ▲85년~현재 모교 국문과 강사.

◆崔秉煥(철학박사) = Hegel 哲學에 있어서 國家와 宗教의 相補性에 관한 研究-法哲學을 中心으로 ▲45년생 ▲74년 서울대 사회교육과 ▲83년 대전대·충남대·강사 ▲86년~현재 대전대 조교수.

▲朴文鉉(철학박사) = 墨子의 經世思想 研究 ▲48년생 ▲75년 부산대 철학과 ▲80년 영남대 강사 ▲83년~현재 동해대 철학과 교수.

▲林鍾煥(교육학박사) = 敎師背景 및 學校狀況 變因과 敎師燒盡經驗간의 關係 ▲40년생 ▲55년 경남대 ▲83년 서울시립대 강사 ▲84년~현재 부산교육대 부교수.

◆柳重遠(법학박사) = 信用狀 去來의 法律關係에 관한 研究 ▲47년생 ▲75년 전남대 법학과 ▲84년 강원대 강사 ▲89년~현재 변호사.

◆陳世赫(행정학박사) =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行政實施에 관한 研究-서울특별시와 社會福祉서비스를 中心으로 ▲59년생 ▲82년 모교 행정학과 ▲85년 군산대·상명대·아주대 강사 ▲86년~현재 서울시립대 강사.

◆金孔烈(행정학박사) = 北韓의 公共官俸制에 관한 研究-官俸制의 실태와 官俸의 行態를 中心으로 ▲38년생 ▲60년 서울대 법학과 ▲72년~80년 국토통일원 부이사관 ▲86년~현재 아주대 행정과 교수.

◆金忠男(법학박사) = 警察과 地域社會關係에 관한 研究 ▲43년생 ▲70년 모교 행정학과 ▲81년 경기도청 경비계장(경정) ▲89년~현재 인천시경 경무계장.

◆全大陽(법학박사) = 累犯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관한 調査研究 ▲59년생 ▲82년 모교 경찰행정학과 ▲87년 모교·광운대 강사 ▲88년~현재 관세공무원 교육원 강사.

◆柳承奎(경제학박사) = 朝鮮後期近代意圖의 商業發達에 미친 影響 ▲48년생 ▲72년 숭실대 경제학과 ▲82년 숭실대 강사 ▲83년~현재 원광대 사 회대 부교수.

◆李光載(경영학박사) = 情報시스템의 成果評價에 관한 實證的 研究-財務情報分野의 END-USER를 中心으로 ▲57년생 ▲81년 모교 경영학과 ▲87년~현재 모교 강사.

▲朴文緒(경영학박사) = 韓國의 變因과 貿易 構造分析 ▲59년생 ▲83년 모교 무역학과 ▲88년~현재 모교 삼경대학 강사.

원폭지복지금 모금 黃明秀 肅문



▲黃明秀 (53政治)국회보사위원장은 지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평화회관건립과폭자복지금 모금을위한 도예작품 전시판매를 개최했다.

「성나원」상임이사취임 朴壽天 肅문



▲朴壽天 (77行政)肅문은 최근 부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취하여 사회복지법인「성나원」상임이사로 취임하였다. 차등문은 현재 새한총합금융(주)차장으로 재직중이며 평소 노인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있다.

치안전략학술회의참석 李永洙 肅문



▲李永洙 (58法學)住公이사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3차 90년대 치안전략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0년대의 급변하는 정치·사회에 대한 심도깊은 문제를 다뤘다.

전자계산교육원 개원 曹武成 肅문



▲曹武成 (64經濟)광운대총장은 지난달 7월 30일 상오 학교부설 전자계산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9

월달에 2년과정의 1천명규모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교육원은 평생교육과 고급전산인력배출및 전자계산 전공자에게 재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술원 회장 취임 徐澈班 肅문



▲徐澈班前총장은 지난 7월 20일 열린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취임했다.徐 전총장은 현재 새법철학 사회철학 한국학회장, 단하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약중이다.

중국개방정책 논의 김원순 肅문

▲김원순 (78정치)肅문은 시카고 무역인협회 회원들과 최근 중국을 방문,대관총장,미국영사관 부영사등과 중국의 개방정책등(주)차장으로 재직중이며 평소 시카고 한인 무역인협회 총무로 있으면서 이번방문은 중국의 무역조건을 전제로 산업시찰을 겸하고있다.

민이黨중앙위부위장에 金明浩 肅문



▲金明浩 (57經濟)肅문은 최근 민이黨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환경경분과 위원장직에

선됐다. 한편 9월 1일에는 대한아구협회로부터 분리된 한국리틀아구연맹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동구권학생연수단인솔趙炳煥 肅문

▲趙炳煥 (63농학)肅문은 소련·폴란드에서 실시하는 동구권 학생연수단을 이끌고 지난

8월 9일 출국했다. 韓동무은 현재 모교 학생처장으로 재직중이다.

불교지도자대회 특강 朴完一 肅문



▲朴完一 (61佛敎)肅문은 지난8월 11, 12일 충북수안보대 크로텔에서 열린 불교지도자대회에서「한국불교의 미래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榮進轉補

▲鄭璋和 (57정치·본회사) = 전 국은행연한회사무에서 강원은행 전무이사

▲許林 (62정치·본회사) = 대한항공 김포국제여객지점장에서 대한항공 조합 1부 부장으로

▲朴泳周 (63정치·본회사) = 강원은행본점 안전관리자장에서 강원은행 감리직장으로

▲韓世綺 (67행정·본회사) = 碧山金屬(주) 대표이사에서 한일스텐레스 전무이사

▲鄭泰洙 (73행정·본회사)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장에서 정부총합청사 내부부지 방식의 국장으로

▲姜國中 (73행정) = 부국상호신용금고 영등포지점장으로

▲張錫勳 (82행정) = 지난 7월 초 육군중령으로 승진후 ○부대장으로 부임

▲李在寬 (89행정) = 지난 6월 육군소령으로 승진후 ○부대장으로 부임

▲朴鍾九 (81행정) = 지난 5월 19일 동령 평화지점장에서 동령읍상지점장으로 부임

▲金斗煥 (83행정) = 지난 4월 1일자 기구개편시 민자당 민동병지구당 사무국장으로부임

▲李壽龍 (85경영) = 최근 한미은행 서초동지점과장으로발령

▲李光鎬 (78行政) = 지난 7월 11일 한국보증보험(주) 부산중부지점 개설준비위원장으로 영전

▲趙要鎭 (58政治) = 최근 한국전력공사 판매사업단장으로 영전

▲鄭敏和 (59法學) = 최근 실시된 인사에서 국회사무처의 사무국장으로 영전

▲金在鎭 (63經濟) = 최근 인사이동에서 한국도로공사 業務本部長에 발령.

<경찰계 동문인사>

최근 발표된 경찰계 인사에서 김현식 (57史學)肅문을 비롯한 14명의 동문이 자리를 옮겼다.

▲김현식 (57 사학) = 서울시경 경무과

▲현상중 (77 행정) = 제주시경 경무과

▲김태서 (82 행정) = 충남도경 경무과

▲정화영 (68 경행) = 부평경찰서 방송대장

▲전병량 (69 경행) = 속초서경비과장

▲김영효 (72 경행) = 성동서 교통계장

▲안기성 (73 경행) = 남부서 형사과장

▲박종환 (75 경행) = 서울시경 외근계장

▲이한명 (76경행) = 부산 영도서 수사과장

▲최성철 (77경행) = 부산 동래서 대공과장

▲신동근 (77 경행) = 종로서 수사과장

▲어정승 (77 경행) = 고속도로 순찰계장

▲황성모 (78 경행) = 강원도설악동 파출소장

▲백석중 (81 경행) = 서울시경 형사기동대

<철도청 동문인사>

철도청 동우회 韓大淵 (58물리) 동문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는등 2명의 동문이 자리를 옮겼다.

▲李仁儉 (60법학) 동문 = 7월 4일자로 철도청 감사2계

장에서 순천지방별도청 순천역장으로 승진발령

▲李志顯 (61수학) 동문 = 7월 4일자로 교통공무원교육원서무계장에서 순천지방별도청 관주역장으로 승진발령

結婚

▲鄭相洙 (61·法學·本會부회장 금강 고려화학회) = 지난달 30일 12시 30분 육군회관에서 次男 穆익구 화측

▲林和(55法學·本會)이사 아남상회대표 =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잠실 롯데에식당 매실에서 차남 兪勳근 화측

訃音

李來秀 同門 別世

▲李來秀 (76대원·도교 교수) 동문 이사 22일 오전 6시 51분 부건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향

년 49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모교 정각일에서 영결식을 가진후 충남 서산군 근흥면만기리선영에안장됐다.

▲고훈중 (70 법학) 동문 = 지난 1일 강릉구룡남동행대중앙병원에서 지방으로 별세했다.

▲趙律在 (49 문과) 동문 = 11월 21일 자택에서 수환으로 별세.

.....

◇구경 = 본報 146號 2面에게 재민 89·90會計年度에 결산收支表 支表 89決算計 사무실 관리비가 0 기지급이자환급 248.9

53인명퇴회계지출 2,500,000차기이월금 121,362 90년豫算額 기지급 이자환급 0 인명퇴회계지출 5,000,000으로 바로잡습니다.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常務理事會費 (단위: 만원)

- ▲김용모 (59경제) = 20
- ▲양종호 (81행정) = 20
- ▲홍사일 (60영문) = 20
- ▲유영삼 (52영문) = 20
- ▲오국근 (58영문) = 20
- ▲최춘지 (57법학) = 20
- ▲박은규 (61정치) = 20
- ▲유기동 (65시공) = 20
- ▲한영취 (61경제) = 20
- ▲정규안 (65경제) = 20
- ▲이능희 (65상학) = 20
- ▲부진장 (64법교) = 20
- ▲윤부성 (63생물) = 20
- ▲인철환 (52경제) = 20
- ▲박효원 (65정치) = 20
- ▲최종철 (58경제) = 20
- ▲이연태 (61법학) = 20
- 계 = 3백 40만원

◇理事會費

- ▲김완식 (71농학) = 5
- ▲박진병 (58경제) = 5
- ▲이준필 (62경제) = 5
- ▲공진식 (62정치) = 5
- ▲김규진 (67사학) = 5
- ▲박상문 (66국문) = 5
- ▲홍영성 (63법학) = 5
- ▲김훈기 (61정치) = 5

- ▲이희일 (63정치) = 5
- ▲김세영 (58법학) = 5
- ▲박삼량 (69상학) = 5
- ▲위정삼 (71농경) = 5
- ▲허길남 (67농생) = 5
- ▲박도근 (65상학) = 5
- ▲김용구 (71농학) = 5
- ▲이성우 (87한외) = 5
- ▲유병관 (60정치) = 5
- ▲조현수 (64농경) = 5
- ▲이무영 (71행정) = 5
- ▲정규안 (65정치) = 5
- ▲신현태 (57경제) = 5
- ▲유광진 (64정치) = 5
- ▲이성근 (86한외) = 5
- ▲이영훈 (79경영) = 5
- ▲조문영 (60법학) = 5
- ▲김복남 (60경제) = 5
- ▲정정철 (80경영) = 5
- ▲이예환 (65정치) = 5
- ▲이호만 (64정치) = 5
- ▲이재령 (62경제) = 5
- ▲임진순 (64국문) = 5
- ▲김종원 (58법학) = 5
- ▲김창환 (67정치) = 5
- ▲홍정호 (62경영) = 5
- ▲박상문 (66국문) = 5
- ▲나연표 (59경세) = 5
- ▲송민식 (68정치) = 5
- ▲박영주 (63정치) = 5

- ▲김희형 (60정치) = 5
- ▲장명근 (64법학) = 5
- ▲이정주 (76경영) = 5
- ▲이정규 (60정치) = 5
- ▲김길곤 (66정치) = 5
- ▲이동우 (61법학) = 5
- ▲정병립 (84행정) = 5
- ▲김동길 (61경제) = 5
- ▲박찬대 (62농학) = 5
- ▲강병국 (68농경) = 5
- ▲김창영 (86경영) = 5
- ▲이창영 (51정치) = 5
- ▲정재호 (62정치) = 5
- ▲고용구 (74정치) = 5
- ▲이성우 (66행정) = 5
- ▲임화 (55법학) = 5
- ▲김재홍 (60경제) = 5
- ▲광정식 (73행정) = 5
- ▲김복철 (62정치) = 5
- ▲정기영 (51정치) = 5
- ▲조종학 (65경제) = 5
- ▲유병만 (68상학) = 5
- ▲오철구 (53정치) = 5
- ▲신현조 (84국문) = 5
- ▲박종대 (59경제) = 5
- ▲김만대 (62국문) = 5
- ▲상성일 (69상학) = 5
- ▲박종모 (72경제) = 5
- ▲구자선 (81경원) = 5

- ▲구재대 (67경행) = 5
- ▲천기용 (60정치) = 5
- ▲김윤중 (73정치) = 5
- ▲박주원 (78행정) = 5
- ▲유홍식 (61국문) = 5
- ▲이인진 (62법학) = 5
- ▲매재국 (62철학) = 5
- ▲송용식 (64경제) = 5
- ▲김대일 (65경제) = 5
- ▲김지우 (62법학) = 5
- ▲박수철 (57일학) = 5
- ▲윤택 (66경제) = 5
- ▲박종구 (65경영) = 5
- ▲박충수 (64경영) = 5
- ▲최성호 (52국문) = 5
- ▲왕표순 (55정치) = 5
- ▲유병중 (65행정) = 5
- ▲정대일 (57정치) = 5
- ▲김정희 (64경제) = 5
- ▲조흥 (66영문) = 5
- ▲김영중 (63상학) = 5
- ▲임정자 (79경원) = 5
- ▲이대기 (63상학) = 5
- ▲김관성 (48법교) = 5
- ▲김월환 (58법학) = 5
- ▲노주현 (82농생) = 5
- ▲홍성표 (70목부) = 5
- ▲홍석오 (65정치) = 5

- ▲박재준 (61경제) = 1
- ▲전순표 (57농학) = 5
- ▲안국승 (60경제) = 5
- ▲장위상 (67대원) = 5
- ▲이봉화 (86행정) = 5
- ▲조희영 (63경영) = 5
- ▲유상규 (64정치) = 5
- ▲손태중 (69농경) = 5
- ▲지창훈 (52경제) = 5
- ▲현해천 (75행정) = 5
- ▲함영욱 (58정치) = 5
- ▲황민환 (67행정) = 5
- ▲이한우 (85교원) = 5
- ▲서성래 (63생물) = 5
- ▲송상현 (58수학) = 5
- ▲김봉춘 (65정치) = 5
- ▲김제우 (79국문) = 5
- ▲김재진 (63경제) = 5
- ▲최장화 (60정치) = 5
- ▲김종혁 (55영문) = 5
- ▲정대수 (73행정) = 5
- ▲허경우 (64경제) = 5
- ▲박용섭 (51국문) = 5
- ▲김대용 (67경제) = 5
- ▲이상훈 (57법학) = 5
- ▲윤재식 (61정치) = 5
- ▲최세화 (56국문) = 5
- ▲김성수 (68경행) = 5
- ▲우대주 (70경영) = 5
- 계 = 6백 20만원

◇年會費
▲구영학 (67行院) = 2
▲안영근 (·) = 2
▲김영대 (61경제) = 1
▲고안인 (63경영) = 1
▲김대근 (74철학) = 1

▲정중수 (83행정) = 1
▲윤병학 (80공경) = 1
▲이성진 (58법학) = 2
▲박민식 (82행정) = 1
▲김정선 (78행정) = 2
▲김원경 (63법학) = 1
▲이규익 (75경영) = 1
▲이희철 (83경원) = 2
▲김충구 (84목부) = 1
▲강주식 (81국문) = 1
▲김광은 (87한외) = 1
▲류진규 (79법학) = 1
▲신갈재 (73경학) = 1
▲김정인 (83행정) = 1
▲곽중영 (83경원) = 2
▲송영환 (73국문) = 1
▲송영근 (·영문) = 1
▲황갑순 (53정치) = 1
▲오유선 (87국문) = 1
▲오승훈 (63법학) = 1
▲김광영 (63경영) = 1
▲김제우 (79국문) = 1
▲한만대 (65경원) = 1
▲오병훈 (63법학) = 1
▲김광영 (63경영) = 1
▲김정우 (86경원) = 1
▲임원근 (71경원) = 1
▲김해동 (57국문) = 1
▲유승원 (80행정) = 1
▲남궁역식 86영문 = 1
▲양희태 (88한외) = 1
▲심복식 (59법학) = 1
▲정영길 (69봉계) = 1
▲조희철 (58경제) = 2
▲구본일 (60법학) = 1
▲이수룡 (85경영) = 1
▲이장걸 (62사학) = 1
▲조주인 (64사학) = 1
▲김민태 (86국문) = 1
▲문동환 (·경원) = 1
▲김인수 (89경제) = 1
계 = 86만원
총계 = 10,460,000원

母校, 北京大와 學術 교류기로

佛敎 서적 등 공동 論文集 발간 延邊大와도 구체적 논의할 듯

모교가 우리나라 대학중 최초로 중국 북경대학과 불교학술교류를 갖기로 합의의 결정해 사회주의권 대학과의 본격적인 학문적·인적 교류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9일 모교 吳亨根(불교학) 불교대학장과 정각원장 法山(선학) 스님이 북경대학 계선진(철학) 前총장과 연변대학 노동문 인사처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지난 11일 귀국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 체결로 모교는 북경대와 신학총서(全20권) 발간·공동 논문집 발

간·한·중공동저술서발행·불교관계서적 20권을 편찬하게 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오는 9월까지 교환하며 논문집 발간은 91년 7월경으로 합의했다.

또 연변대학과의 회담에서 양교간 교수·학생 교류에 관한 긍정적인 제의를 받음으로써 인적교류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모교 吳학장 등은 아세아 태평양연구소와 세계종교연구소와도 회담을 가졌으며 중국불교회도 방문, 불교문화교류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

廣州大서 紅桃墓碑 발견
조선조 身分史 중요한 자료

입으로만 전해오던 조선시

母校財團, 학교 발전 方案 모색

모교 재단(이사장·吳綠園)에서는 불교공원묘지 및 위락시설 등 재단수익사업을 추진, 모교 발전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모교 재단은 총 1천 6백여만 원에 이르는 재단소유토지 중 활용가능한 5백여마평 가량을 수익사업에

대 명기 홍도의 묘비가 모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崔孝軾(국사학) 교수에 의해 경주시 도지동에서 발견됐다.

조선시대 신분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이번 묘비는 높이

1백20cm, 너비와 두께 각 50cm의 화강비석으로 앞면에는 「東都妓生 紅桃之墓」라 적혀 있고, 옆면에는 紅桃의 일대기가 3백88자의 비문으로 새겨져 있다.

後期 碩·博士學位 授與式

李仲杓氏 등 박사 34명 석사 170명

모교「89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졸업생 내빈 등 8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모교 중앙당에서 치뤄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이중표(철학박사)씨를 비롯한 박사

34명, 일반대학원 석사 50명, 행정대학원 석사 54명, 경영대학원 석사 19명, 교육대학원 석사 29명, 정보대학원 석사 18명 등 총 1백70명의 석사를 배출함으로써 분회도 2백 4명이 새 동문을 맞게 되었다.

학사보고, 석·박사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 고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된 이날학위수여식에서 申國柱 모교총장은 식사사를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인문적 학문연구와 인성계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차하고이제 여러분의 연구업적이 국가사회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용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실무 작업을 집행중에 있다.

또한, 재단은 그동안 소유토지 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경남사천의 7천 8백여평, 전라도의 임야 30만평등을 등기 완료했으며, 장충수영장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프스 아이저 北壁 정복

한국등반사상 네번째로

모교 경주캠퍼스 산악부가 지난 7월 13일 하오 알프스 아이저북벽(3,970m) 정상에 올랐다.

배경호대장(회계학과)과 이영태대원(경제학과) 등 2명은 7월 12일 상오 3시 아이저북벽아래 그린델발트를 출발, 1박 2일 동안 등정을 시도, 29시간만인 13일 하오 8시 아

이저 정상에 도착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산행을 하던 경북대 산악부의 대원 한 명이 중간에서 실족, 추락했으나 헬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번 배경호팀의 아이저등정은 79. 86. 88년에 이어 한국팀으로는 4번째 성공이다.

美·獨 자매 대학서 도서기증

문학 및 의학 관련 서적 총 55권

모교 자매대학인 미국 UCLA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문학 및 의학 관련 서적 총 55권을 모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는 UCLA에서 「The Male Journey in Japanese Print」 「T.s. Eliot and Prejudice」 등 총 25권의 문학관계서적, 레겐스부르크대학이 「Studienreihe Deutsch als Fremdsprache」 등 독일어 회

화, 의학, 기술 등 전공 관련서적 총 30권을 지난 달 10일과 4월 15일자로 각각 보내왔다.

이에 앞서 모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불교 관련 자료를 총망라한 한국불교전서 총 10권을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 이들 대학에 보내바왔다.

한편, 모교는 UCLA와는 87년 2월 13일에, 레겐스부르크대학과는 87년 9월 28일에 각각

同門들의 끈끈한 愛情 확인의場

崔鎮煥 군 지난 8월 1일 釋放되



崔鎮煥(일문 4)군은 지난 7월 24일 하오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철교 밑 88올림픽대로 커브길에서 화전상운소속 트레일러를 몰고 가던 중 길이막혀 정차해있던 앞차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가 반파되고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전치 3주와 10일의 상

처를 입었다.

崔군은 가세가 기울어 자신과 동생들의 학비마련을 위해 대형트레일러를 몰며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崔군은 사고후 운전사와 승객의 치료비, 택시수리비 등은 보험으로 처리했으나 운전사와의 합의금 3백 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28일 밤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됐다.

8월 1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창회에서는 즉시 崔致根 상임부회장, 張秀正 사무국장을 서울지검으로 보내 崔군에게 합의금 전액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한 鄭在哲회장은 검찰에 동창회회의의 탄원서를 제출, 崔군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밖의 사회각계에서 崔군을 돕기위한 성금과 격려전화가 쇄도했다.

崔군은 그날로 운전사와 합의를 끝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崔군의 신병을 넘겨받아 약식기소 형식으로 석방했다.

석방뒤후, 아버님과 함께 본회를 내방한 崔군은 鄭회장, 崔상임부회장과 같이한 자리에서 「이번일에 벌받고 도의 주신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 崔군이 장차 일반유학을 계획중이라는 말에 동창회에서는 일본지부와 협력해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체신부 通信工事 면허업체

世宇 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집

화환 · 꽃바구니
생화 · 신부화
화분 · 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會費: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조화환·화분, 동·서양란 <도매가
격 판매 전문업체> 한통화의 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전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
진로유통·꽃도매상가

TEL, (대) 521-3900
(야) 521-3838

서일화원

김인택

學生映畫의 先驅 "海風"

-43年前 東大 學窓時節-

俞賢穆

▲49年 文化功勳賞 ▲영화감독 ▲모교藝術大學長 ▲玉冠文化勳章 수상 ▲東國文化大賞 수상

東國文學의 전통이 싸이트 러할 무렵, 그 여파로 학생영화 <海風>이 바다바람의 종파만큼이나 어려운 역경속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내 재학 시절의 가장 인상깊은 추억이 아닐수 없다.

그때 몇몇 신문에서는, 중앙에서 영화화가 없는 대학에서, 이처럼 장편(상영시간 50분)토키영화를 만든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자부심은 지금도 지울수가 없다.

해방직후, 나는 演劇에 뜻을 품고 희곡문학을 전공할 목표로 당시 문학계열외로 쟁쟁한 교수가 즐비한 동국대학 전문부 文學科를 지일했다.



1947년 劇藝術研究會 창설에 가담했고, 다음 나의 취향이 映畫科로 몰리면서 1948년 새 학기에 映畫藝術研究會를 창설하고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金泰均, 金亨杰, 李亨根, 金光烈, 中柳均 등이 핵심 멤버였다.

金起林교수를 지도교수로 추대하여 이론탐구로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우리는 영화작업을 할 만용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학성생태인

우리들의 결의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출발이었다.

그때의 학도호국단 文化室長 金雲三(詩人·作故)을 찾아 제작 비용을 호소했다.그도 영화제작을 신기한 기획으로 받아들여 흔쾌히 수락했으나 문화실에산이래야 어림도없는돈이어서 필립이나 겨우 살정도밖에 되지않았다.

경험이 별로없는 우리기에 현역의 金聖根감독(작고)의 후원으로 내가 학생측감독을 맡아 촬영현장인 仁川 앞永宗島로 향했다.

닷새도 채 못되어 속식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들은 학교로 되돌아올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許允學學長 앞으로 기습방문하여 눈물을 흘리며 책상을 치는등 연극을 한바탕했더니 감동한 許學長은 얼마의 돈을 내주셨다.

돈에 환장한 몇몇 학생들은 우선 추배를 들기위해 술집으로 나를 끌려왔으나 나는 집

이제는 더 지탱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회장자리를 내놓고 돈패나 있는 집안의 李亨根에게 감투를 씌우고 얼마동안 또 계속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절망한 우리들은 학교에서 빼대있게 활동하는 崔篤卿(作



故)를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고백했더니 오�히려 격려하면서 호국단장이었던 崔桂明과 함께 적극 믿어주시기로 약속하고 앞장서기 시작했다.

崔篤卿은 이를 그대로 얼굴은 독수리상이고 몸전체는 머리가 커서인지 사자상이다.성품도 그런 집승의 양처럼 격렬하고 품격적 실천형이었다. 당시 최추사 학생을 모르는 동국대생은 가짜학생이라고까지 했을정도의 명물이었다.

이 명물앞에서는 학장이나 재단장도 위축된 어린양 같았고, 능수능란하게 그들을 주물럭거리는 투였다.

崔桂明은 내가 동국대에 입학할때부터 北出신 苦學生의 숙소인 장춘단덕덕 共濟會(옛 조선총독부관리들의 아파트)에 입학시켜주었고 平安道 출신인 그는 西北青年會의 간부로 있으면서 威城道 출신의 발경이들을 이 共濟會에서 몰아내는데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勇士였다.

左右의 理念紛爭이 銳角化했던 6·25동란전이라 극렬우

익단체인 西北青年會는 무서운 존재였고 그지도자격인 崔桂明은 崔篤卿의 손잡고 左派 大學生들의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大學 學生護國團을 創設하는데 發起하며 앞장섰던 것이다.

서울운동장에서 전국대학學生護國團發團式날 市街행진으로 들어가는데 서울대학이 선두로 행진하려하자 동국대학이 創案한 하도호국단인 만큼 우리가 선봉에서야 한다고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대학은 친일파학우였음으로 민족화원이었던 고려대학(普成專門) 그리고 延大(연희전문)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그소동은 가

졌다. 지도교수인 金起林교수도이놈들이 무슨 작품을 만들겠느냐고 알보았다가 우리들의 루지에 각박했음인지 적극 그마무리작업에 나서주었다.

<海風>의 줄거리는, 어느 가난한 어촌을 무대로 아버지를 험난한 바다에 잃은 소년과 미처버린 형,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비극적죽음을 저항하는 소년의 휴머니즘을 그린 것이다.

그 필름은 6·25동란때 어느 빛쟁이가 몰수해 가지고는

깊은追憶...逆境속에서 탄생 映畫 감독으로의 첫 걸음

증되는 상황이 되었다.이처럼 두 崔君은 大學界의 傑物들이었다.

이 두 걸음들에 의해서 <海風>은 順風에 뜻을 단셈이되었다. 6·25당시 남북민 金孝敬교수를 앞장세워 최추사는 그 교수와함께 포항의 로케이선현장까지 따라와 주었다.

갈매기와 노한 파도를 찍으려 왔는데 좁저녁 바람이 불지않는날이 계속되어 보름가까이 여관신세를 지는데 金교수님과 최추사는 군말없이 같이 끝까지 숙식하며 지원올 때까지였다. 그것은 나의 고집이었다. 이 작품의 마지막장면의 비극성을 높이기위해 저절할 파도의 아우성이필요했고 꼭 찍어야한다는 고집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悲愴>에 심취되었을 때여서, 그 곡속의 파도가 휘몰아치는듯한 처절한 멜로디부분과 바위에 부딪쳐 산산히 부서지는 시각적저절성과매치시키려 했던것이다. 그러한파도의 정경은 西海에서 찾지못하고 여기 東海까지 내려왔던

시골마다 불어다녀면서 흥얼거렸다고 전해지고 있을 뿐, 그소중한 흔적이었던필름은영원히 우리들에서떠나버렸다.

남은것은 내가 오늘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영화감독이되었다는 사실과 그때의 추억들이 아름답게 채색되어 눈앞에 어른거리는 즐거움이며, 한편 서글픈 추억들로서 남북민 金孝敬선생, 타의반자의반인기같은 일복의 金起林선생, 일찌기 작고한 학우 崔篤卿,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崔桂明, 요절한 金雲三, 그리고 오랜동안 끈질기게 동거동락했던 촬영반들, 지금쯤은 사회에서 은퇴하여 어르신가를 餘生을 보내고 있을 그들이 몹시 보고싶기만하다.

現代不動産仲介社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炯敏 (75 経歴)

대표전화 511-0781 FAX. (02) 547-5742
강남구 신사동 618-3 뉴서울 B D B109호

최고년 14.26% (B급기준) 수익을 보장!

자유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3,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최신한 투자, 확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영동네거리 투자상당 777-4491
대 대 771-06



회비... 1년에 1만원

회보제작·장학기금마련·사무국운영에 기여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 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전산화를 통한 동문 조직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라는 주체 의식을 갖고 自立運營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會費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20
- 監事... 20만원
- 指導委員...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계좌이동 (7500891)
- ②전화주머니용 방문수납

퇴임교수와 함께

"남은 생애도 東國을 위해"

- 停年퇴임한 세교수를 만나다



▲趙旺基교수

『시원섭섭 하네요』라고 퇴임소감을 말하는 趙旺基교수의 인간적인 잔잔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51년에 교육계에 몸담아 지금까지 40여년동안 강단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한것없이 끝나는것같아 아쉽군요』라며 동국의 발전과 같이 호흡해왔던 교수의 종재에서 겸손함과 온화함이 서려온다.

지난31일자로 정년퇴임한趙旺基교수는 51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래 오늘날까지 모교에 재직하며 경산대학장등을 역임해 학생들의 진로관개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한국의 무역학에 특히 관심을 갖고있는 趙旺基교수는 최근『한국 수출산업의 품질과 기술혁신에 관한 집중적연구』로 논문을 발표해 주위의 관심을 끌기도했다.

또한 지난 88년 본교 체육부 자문위원으로 재직시『서울

을 설립해서 어려화자들과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문영역을 조금더 넓혀볼까합니다』라고 호문담구에 대한 열정을 밝힌다.

평소 학생들을 대할때마다 학문의 깊고얕음보다 인간다운 생활과 자신의 임무를 달성해 내는 귀한사람이되는 것



▲崔燦有교수

『떠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남아있겠습니까』하고 오히려 반문하는崔燦有교수를 보며 의아해진 기자에게 『떠날때는 말없이』라는 말처럼 조용히 물러나려했지만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후진양성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연구논문도 쓰고 열성적으로 가르쳤지만 생각한 만큼 큰 기여를 못해 역부족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며 퇴임후에도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제까지 보살펴 준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아울러 전했다.

동국의 주인은 재단총장서 리도 학교측 인사도 아닌 학생들이라고 강조하며 학교행정 정책의 모순, 재정문제, 시설의 낙후등 기타 여러문제를 고지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학생의 기본을 인지하여 새벽에 비지땀을 흘리면 서 학문의 깊은 뜻도 헤아릴 줄 아는 대학인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사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視野를 世界로 넓혀 國際化에 앞장서길"

울림찍서 김영남군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 매우 기뻐다』며 제자들의 패거를 기자에게 자랑한다.

퇴임후 행적을 묻는 기자에게『퇴임후에도 환경이 될때까지 학문연구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예요, 또 학술연구수도

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학생들에게 깊은 신망을 받고있는 趙旺基교수『학생들의 사야를 세계로 넓혀서 국제대학과 어깨를 겨룰수있게하고 작게는 개인발전을 위해, 나아가 학교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총대진하라』고 당부하며 말을맺었다.

는 선배와 동악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진정한 동국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靜中動의 姿勢견지한 成熟한 大學人되기를"

정·중·동의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는 성숙한 대학인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고 작은미소를 짓는다.

지난 50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63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온 崔燦有교수는 후진양성에 전념하는 한편 지난88년에는 기초조정실장을 역임해 학교 행정을 돌보기도했다.

정·중·동의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는 성숙한 대학인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며 말을 맺는 崔교수의 모습은 영원한 우리의 은사임을 느끼게 해준다.



▲兪贇穆교수

한사람으로서 한국 영화발전에 기여해온 兪贇穆교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기자가 兪교

백선』에서 이범선 원작『오발탄』등으로 최다작품 연출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퇴임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휴머니즘적 영화제작과 함께 모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겠다』며 퇴임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는 兪교수의 모습에서 남산코끼리의 기상을 느낄수 있었다. 모교를 떠나며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는질문에『70년

"映畫製作과 後進養成에 半平生바친 외길 人生"

수십의 연구실을 방문했을때, 兪교수는 지난15일부터 열린 한소애교류심포지엄차 소련방문으로 조금은 피로에찬 모습이었다.

지난76년 모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부임해 영화학회회장, 예술원 회원, 예술대 학장등을 맡고있고 나문규, 이규환등에 이어 한국영화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兪교수는 지난해 10월『한국영화70년-대표작2

대이후 침체되는 학교를 보며 재단의 지원이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아울러 연영과의 기자 재부족을 들며 제자들의 고생을 안스러워했다.

지난 반세기를 동국에 몸담으며 한편으로는 활발한 영화제작에, 한편으로는 후배양성에 한평생을 보낸『동국의 산증인』으로서 동국에서 가꿔온 추억 하나하나를 간직하려는 兪교수의 모습은 동국을아끼

"母校학생들 本會사무국 방문"

졸업생 취업대책 절실

작금의 취업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본회사사무국에 모교학생들이 찾아와 취업문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사무국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가슴이 아프게했다는데, 본동동동 동문여러분께 부탁드리오니 재학생 취업대책에 여러가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양선원에 대중공양

도선사 주지로 있는 촌추(75行院)동문은 최근 문경 불암사 선원에서 결제중인 대중을 위해 대중공양으로 백미15가마를 전달해 주변사람들을 흐트케 했다는데...

본동동동 동문여러분께 귀담하오니, 각 지부에서 단체로 구입주님이 채도하고 있어, 사무국에서는 선착순으로 판매할 것이나 사실만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록 주문제도

본회사사무국에선 1년여의 작업끝에 발간된 동국인명

록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어 각급동문들의 성원을 실감하고 있다고.

본동동동 동문여러분께 귀담하오니, 각 지부에서 단체로 구입주님이 채도하고 있어, 사무국에서는 선착순으로 판매할 것이나 사실만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용 압체죽

압체죽도 여러가지라는데... 최근엔 성명만을 밝힌채 동명이인의 이름을 이용해 책등을 판매하고 있어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본동동동 동문여러분께 부탁드리오니 재발 이런 압체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人名錄판매 성황리에... 동문들 성원실감"

대우자동차 (株)

89년선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임페리얼 (3,000cc) 계약개시
로얄시리즈 (로얄프린스·듀크)
월드키트람 (GSE·올티마·GTE·레이서)
JCAR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鉉石 (74연영)
강남구 대치동960 성덕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正宗 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원)

● 全國 不動産仲介協會 理事
● 城東區 公認仲介士 會 會長

전화: (사) 234-4777, 238-9321-2 (재)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정문앞)

■ 西獨 보쉬 純正品
연료 節減
엔진 출력증가/수명 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기아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Ithermo start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원)
TEL. (02) 213-1392/3107 아프리카서비스 244-0997

信一 金屬센터 (株)

활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藝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의)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 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원)